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6. 22.(수) 10:00	배포 일시	2022. 6. 22.(수) 10:00
담당 부서 <공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831)
		담당자	사무관 유혜원 (044-203-2832)

6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이 운항을 재개합니다

- 한국과 일본 양국 수도(서울~도쿄)를 잇는 교류 증진의 교두보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외교부(장관 박진)는 6월 29일(수)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하고 방한 관광객 확대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03년 운항 개시 이후 대표적인 한일 간 사업 노선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양국 수도와의 접근성이 우수해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육박하는 황금노선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20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 '19년도 정기편 운항 횟수: 주 84회(대한항공·아시아나·일본항공·전일본공수 각 주 21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면담(5. 11.)하고, 한일 관계 회복 의지를 밝히면서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에 김포공항 국제선 재개 준비를 완료하고, 김포-하네다 노선을 이룬 시일 내에 복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일본 국토교통성·외무성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6월 21일(화), 양국 항공 당국 간 화상회의를 통해 6월 29일(수)에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고, 일주일에 8회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운항 횟수도 수요 증가 추세, 항공사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7월부터 점차 증대할 계획이다.

< 세부 운항스케줄 >

	주당 운항횟수	운항 스케줄	투입 기종*
대한항공	주 2회	수 / 토	B737(174석)
아시아나	주 2회	수 / 금	A330(290석)
일본항공	주 2회	목 / 일	B767(199석) 또는 B787(199석)
전일본공수	주 2회	월 / 금	B787(240석)

* 항공사의 기체 운용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문체부, 방한 관광 재개 적극 홍보

또한 6월 1일부터 관광목적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이 재개됨에 따라 김포-하네다 노선을 이용해 한국을 관광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문체부는 이번 노선 운항 재개를 계기로 김포공항 내에 외국인 관광객 확대공간을 열어 방한 관광 재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일본 주요 도시에서 한국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박람회 등을 계기로 양국 관광업계 간 교류망 복원을 촉진하는 등 일본 방한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관광산업을 재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김포~하네다 노선은 서울과 도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높은 노선”이라며,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가 한-일 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책임자	과장 김남균 (044-201-4207)
		담당자	사무관 신우철 (044-201-4211)
<공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831)
		담당자	사무관 유혜원 (044-203-2832)
<공동>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책임자	과장 염보영 (044-000-0000)
		담당자	사무관 이현아 (044-000-0000)

